

201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인문계열문항 해설

1. 출제 의도와 문제의 구성

■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모의논술 인문 논술의 대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일이 갖는 의미’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일 또는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에게 일은 생계의 수단이자 자존감의 근원이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일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인간관계의 범위, 상호작용까지 결정한다. 이런 까닭에 현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 구실을 못하는 잉여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가면서 일에 몰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삶에서 일이 갖는 의미,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체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왜 일을 해야 하는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2015 숙명여대 모의논술 인문논술 제시문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성찰적 인식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학, 사회학, 철학사상 영역의 저술 등에서 선별하였다. 논제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제시문들을 분석적으로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들 간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는 비판적·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논제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제시문 <가>의 소설 속 서술자 ‘나’가 보여주는 태도와 제시문 <나>에 기술된 ‘직장인들’의 태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논제는 크게 두 가지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가>의 서술자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시오.
2.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과 관련하여 <다>의 관점에서 <가>의 서술자 ‘나’와 <나>의 ‘직장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우선 이 논제의 앞부분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①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가>의 서술자 ‘나’와 <나>에 기술된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②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가>의 서술자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제의 뒷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①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제시문 <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② ①의 내용을 근거로,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제시문의 요지

제시문 <가> : 김애란, <큐티클>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시골출신의 스물여덟 살 여성 ‘나’가 대도시 ‘서울’에 정착하고 난 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느낌” 감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목록’에 대한 ‘소비’ 욕망이 점점 커져나가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나’의 소비 욕망이 점차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나’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날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나’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목록에 대한 소비 욕망을 가지게 한 것이다. ‘나’가 “소비는 내가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뭔가 지불할 때, 나는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 연유한다.

제시문 <나> :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 에서 발췌

제시문 <나>는 ‘직장인들’이 ‘자기 계발’의 방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근면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직장인들’은 어느 누구도 ‘실업’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만뿐만 아니라 일터 외부에서도 부단한 ‘자기 계발’과 ‘시간 관리’를 통해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이다.

제시문 <다> : 강상중, 고민하는 힘 에서 발췌

제시문 <다>에서는 TV 방송에 나온 한 남성 노숙자의 예화를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남성 노숙자의 예화가 상징하듯이, ‘일을 한다’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회 속 ‘타자로부터의 배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합체’인 까닭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 이외의 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수단이 바로 ‘일을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제시문 <다>는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 속에 있는 자기를 재확인하고 그 속에서 살아도 좋다는 실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이다.

2. 답안 구성 요소

■ 논제

(1) 논제 개요

논제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제시문 <가>의 소설 속 서술자 ‘나’가 보여주는 태도와 제시문 <나>에 기술된 ‘직장인들’의 태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특징 파악

-<가>의 ‘나’가 보여주는 태도의 특징 : 소비를 위한 노동

<가>에서 서술되고 있는 ‘나’의 고백에 근거해 볼 때, 현재 ‘나’는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필요한 물품 목록을 구매할 때 자신이 ‘대도시의 왕성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까지 받는다. 즉 ‘나’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나’가 ‘일’을 하는 목적은 자기만족을 위해 행해지는 소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특징 : 생존을 위한 노동

<나>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할 때, 오늘날 ‘직장인들’은 ‘실업’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한다. 따라서 <나>에 기술된 ‘직장인들’은 무엇보다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생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제시문 <가>의 ‘나’와 제시문 <나>의 직장인들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일’을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일을 하는 목적, 이유, 삶의 방식’ 등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항목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0 일을 하는 목적의 측면

①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가>의 ‘나’는 소비를 통한 자기존재를 확인하는데 일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직장인들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 일의 목적이 있다.

0 일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의 측면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에서 ‘나’가 일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일상화된 ‘실업’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에서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0 삶의 방식의 측면

<가>의 ‘나’의 경우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품을 소비하는데 몰입한다는 점에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나>의 ‘직장인들’의 경우 실업의 ‘불안’을 지우기 위해 직장 안팎에서 부단한 ‘자기 계발’과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면하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한다.

③ ‘왜 일을 해야 하는가’란 물음에 대한 <다>의 관점 파악

제시문 <다>에 따르면, 남성 노숙자의 예화가 상징하듯, ‘일’은 직접적으로 자기 존재의 확인(자기인정)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일을 함으로써 사회 속 ‘타자로부터의 배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는 것을 제시문 <다>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사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합체’인 까닭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 이외의 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위한 수단이 바로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시문 <다>는 첫째, 일이 자기 존재의 확인(자기 인정)의 계기라는 점, 둘째 그러나 자기 존재의 확인은 ‘보이지 않는 타자’들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왜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물음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서 ‘나’와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한 평가

③에 근거할 때,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의 경우 일을 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일’을 ‘자기 존재의 확인(자기 인정)의 계기로 보고 있는 제시문 <다>의 관점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나> 모두 ‘타자로부터

터의 배려', '타자에 대한 배려'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 확인(자기 인정)'의 만족감은 <가>의 '나'와 <나>의 '직장인들'의 경우 타자와 관계가 배제된 개인적 만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시문 <다>에서 일을 하는 목적으로 '돈'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남성 노숙자의 예화가 보여주듯이, '돈'은 부차적일 것일 따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이다. 이러한 <다>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의 '나'의 경우나 <나>의 '직장인들'의 경우 모두 '돈'과 같은 세속적 가치가 일의 주요한 목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